



2022. 11. 29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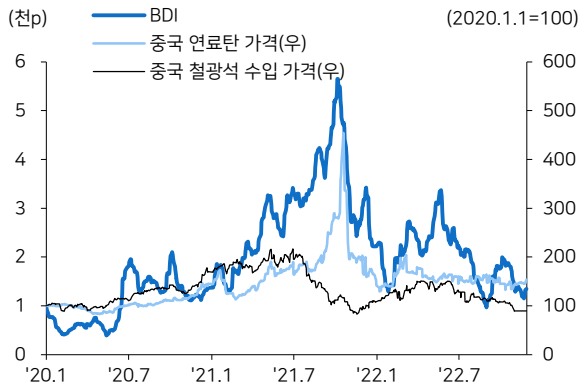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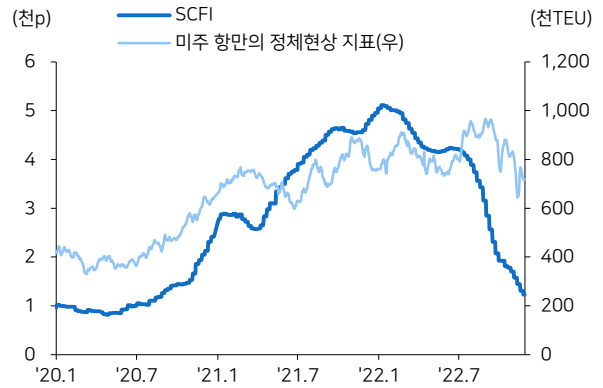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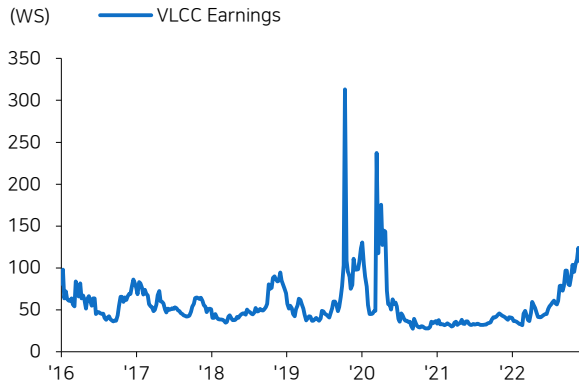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47.0p(+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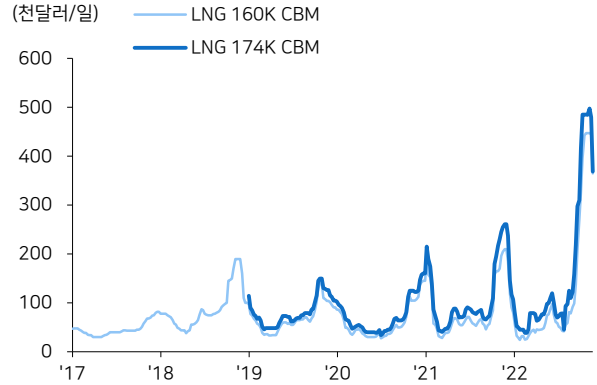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29.9p(-76.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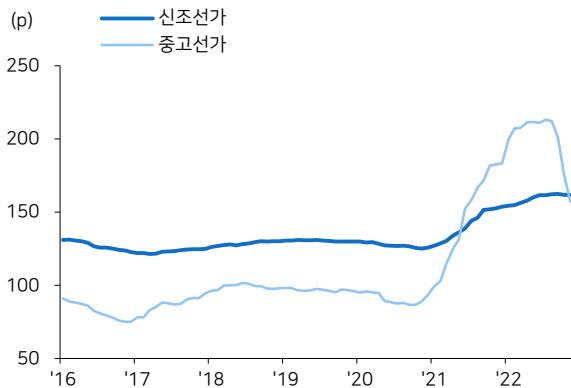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107.6p(-16.4p WoW)



LNG Spot 운임 365.0p(-80.3p WoW)
368.8p(-111.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57.2p(-7.4p WoW)



항공시장 지표 255.2p(-)
96.4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영국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사실상 승인

영국 경쟁당국(CMA)가 대한항공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됨.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 15일 심사를 연장해 추가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음. (조선Biz)

Grain from Ukraine scheme to use '60 bulkers' to get food to poorer nations

우크라이나가 2023년 봄까지 아프리카항 곡물 수출에 벌크선 약 60척이 필요할 계획으로 보도됨. '우크라이나에서 온 곡물(Grain from Ukraine) 이니셔티브'를 통해 식량난에 허덕이는 중동·아프리카에 곡물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해 20여 개의 동맹국과 함께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Gibsons says prices and demand for older tankers may be softening

Gibsons에 따르면 노후탱커 수요 및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9~10월 15년된 Aframax 선가는 200만달러, Suezmax 선가는 100만달러 하락한 바 있음. 6월 이후 선가는 계속 2015년 평균보다 높은 상황은 유지되고 있지만, 노후선박 거래 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Gibsons는 선사들이 S&P시장에 나서기 전에 러시아 제재 시행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분석함. (Tradewinds)

Cosco Shipping boosting car carrier fleet with newbuild additions

Cosco Shipping이 5억달러이상 규모의 최소 6척의 자동차운반선을 발주한다고 보도됨. 2022년 상반기에도 자국 3개 조선사에 15척을 발주한 바 있음. 7,000CEU급 LNG 이중연료 선박으로 Xiamen Shipbuilding에서 건조될 것으로 알려짐. 브로커들은 선가는 척당 8,500만달러수준이고, 2025~26년사이 인도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ONGC triggers chase to supply 24 offshore vessels in growing Indian offshore push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OSV 최대 24척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ONGC는 향후 3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동부, 서부 해상유전 개발계획을 갖고있다고 알려짐. 해당 입찰은 3년 용선 조건으로 AHTS와 OSV를 계약할 계획으로 알려짐. (Upstream)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 '택배'는 영향 없다는데...배경은

전국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 맞았지만 택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도됨.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계는 총파업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1) 화물연대와 별개인 전국택배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고, 2) 물류터미널과 터미널을 잇는 간선 차량 기사는 파업에 동참할 수 있으나 CJ대한통운·한진·롯데택배 등은 노조에 소속된 기사 수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고 알려짐. 또, 간선차량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총파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설명함. (뉴스1)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